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재조명(하)

선비가문, 지혜에 담력 갖춘 지장

이내원

<이순신 승모인>

<워싱턴 한국일보 2003년 4월 29일 기고>

그러면 세계제일의 위대한 제독 이순신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관중추부사 이변, 이조정랑 및 사헌부 장령을 지낸 이거, 조광조와 함께 기묘사화에 화를 당한 기개있는 선비 이백록 등 청렴결백하고 강직하기로 이름난 명문 덕수 이씨 선비집안에서 가난한 선비 이정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순신은 대단히 총명하여 불과 열 두살 때 논어와 맹자를 익히고 대학과 중용을 읽을 수 있어서 바로 이 선비가문 출생의 배경이 훗날 병서에 두루 정통하여 빈틈없이 용의주도하고 사려 깊으며 부지런히 준비하는 선비형 지장이 되게 한다. 또 불가사의한 기록정신을 발휘하여 7년간의 전쟁 참상을 난중일기라는 대기록으로 후세에 남기니 이런 다행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운명적으로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에 어릴 적 친구로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역천하여 결정적 공헌을 한 영의정 류성룡도 그의 저서 징비록에서 “이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고 수근한 선비와 같은데 특히 담력이 있었다”고 쓴 것을 보거나 뒷날 난중일기의 도처에 몸이 불편하여 괴로운 심회를 하루가 멀다하고 술회한 사실로 보아도 전형적인 무장이 아니라 지혜와 정신력의 지장이었음이 분명하다.

장군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

첫째, 장군은 천만다행으로 그 당시 무자비한 시기와 반대를 이기고 류성룡의 역천으로 7계급을 뛰어 독자 작전권이 있는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자마자 왜구들의 남해안 약탈의 참화를 듣고 전쟁을 예견, 울곡의 십만 양병론에 공감하면서 치밀하게 군비의 정비와 확충에 진력한다. 쓸 수 없이 방치된 몇 척의 판옥선을 수리 정비하고 새로운 판옥선을 20여 척 신조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건조시험하고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였다.
또 군량과 화살을 비축하고 화약의 더 많은 공급을 조정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둘째, 해이한 군기를 바로잡아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였으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수군의 정예화를 이룩했다. 당시 조선의 군제에는 육군과 수군의 편제가 따로 없어 육군에서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들을 좌천 배치하는 곳이 수군수영이었으니 그 속에서 불패의 수군을 일구어낸 장군의 어려움이 어떠했을지 짐작 할 만하다.

난중일기에는 기일을 어긴 부장들을 곤장 때리고 흠치고 도망치는 병사의 목을 베는 장면이 수없이 보이는데 당시 수군진영에서는 일본수군과 싸우다 죽은 조선수군보다 이순신에게 목 베어 죽은 범법수군이 더 많았다고 수군 거렸다 하니 군의 생명인 군기의 확립을 위해서 얼마나 엄정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한산대첩을 압승으로 귀결지은 장군의 쌍학익진법은 깃발과 북, 나팔밖에는 통신의 수단이 없던 당시, 혼란한 전투 중에 진형을 유지 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전법이다. 또 일기에 보면 여가나 군중회의가 있을 때마다 주로 부장들을 두 편으로 갈라 활 쏘기 시합을 시켰으니 여가와 훈련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지도자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전투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탐망첩보선을 띄워 적정탐지에 골몰하여 뛰어난 정탐군관을 운영하였으며, 정탐 결과에 따라 장군의 전술도 변환을 거듭한 것을 볼 수 있다. 전란 초반에는 수색격과 위주로 시작하더니 중반의 견내량, 한산 해전에서는 유인섬멸로, 위기의 명량수전에서는 필사 방어 저항전으로, 마지막 노량대첩에서는 추격박멸전으로 나아갔으며, 진지를 수시로 바꿔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장군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 싸우면 안될 싸움, 죽어도 싸워야 할 싸움 등을 신념과 예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에 어긋나면 임금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명장의 요건이 아닐까.

조정이 일본첩자 요시라의 이간책에 말려 가또(가등청정)가 바다를 건너오니 부산포에 출격하여 가또의 목을 베어오라는 빗발치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부산포는 육군의 지원 없이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죽음의 땅이며, 가또의 정보는 거짓정보일 것이란 판단 하에 출전을 거부하여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해임 구속되고 사형에까지 이르게 된다. 원군의 참패 후 통제사로 재임명되고서는 남은 12척의 배로는 수군을 유지할 수 없으니 차라리 수군을 폐지하

고 권을 수하에 들어가 육장으로 싸우라는 어명에는 오히려 “신에게는 아직도 열 두 척의 배가 있고 신이 살아 지키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며 오히려 임금을 설득, 싸우기를 주장했다. 그때의 작전훈령 즉사즉생(卽死卽生), 즉생즉사(卽生卽死)-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요 살기를 피하면 죽을 것이다 -처럼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전의가 명량수로의 아우성처럼 들리는듯 하다.

임진전란에서 평양까지 진격하고도 해상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은 정유재란에서는 작전을 바꾸어 수륙병진책으로 해상공급로를 확보하려는 왜군 선단 330척을 맞아 불과 12척의 배로 죽기를 무릅쓰고 싸울 물목으로 명량을 택한 지혜와 불퇴전의 용기는 아무리 감탄을 거듭해도 부족하기만 하다.

이 명량해전의 뜻하지 않은 패전으로 일본의 정유재란의 작전 계획은 송두리째 무너져 이때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패퇴의 길로 달음질친다.

특기할 것은 한양의 함락과 선조의 의주 몽진으로 사실상 조정의 기능이 마비되어 수군에 대한 병참지원이 없어 하나에서 열까지 이순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홀로 감당했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군량조달을 위해서는 둔전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야 했고 소금을 구워 팔았으며 생선과 미역을 따서 팔고 수영 인근에서는 통행세도 부과해야 했다.

노인과 부녀와 아이들만 밀려다니는 피난민중에서 배타고 싸울 장정을 모병하기는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옆친 데 덩친 격으로 조정은 명나라 진린의 5천 수군의 뒷바라지 마저 이순신에게 떠넘기면서 “비위를 맞춰 잘 대접해 주라” 고 까지 이르니 공의 어려움이 어떠했으랴.

그런데 이때 원군으로 나온 명의 장수들의 오만과 행패에 대신들과 임금마저도 속수무책 기를 펴지 못하고 찢찢매고 있을 때 오직 이순신 장군만이 횡포와 약탈로 범법을 일삼는 명군을 체포하여 군율을 시행, 불기를 때렸으니 공의 지혜로움을 또 누가 따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진린은 원군으로 왔다고는 하나 남의 나라 일에 목숨 걸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순신 장군이 뒷바라지 잘해주어 세상 편하게 지내는데 앞에 나가 싸우지를 않으니 명 황제에게 전공을 보고할 수급, 곤적군을 죽여 목을 벤 머리가 입수되지 않아 신경질을 부리는 속내를 눈치챈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이 거둔 수급을 수 천개 진린에게 넘겨준다. 자기의 말 못할 한가지 고민을 해결 받은 진린은 이순신 장군에게 호감을 갖고 새롭게 대하기 시작한다.

이 때 이순신 장군은 짐짓 진린에게 명군의 횡포와 민폐가 심하여 명군과

헤어져 진지를 옮기겠노라고 압박한다. 제반 주둔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뻔히 내다보는 진린은 그냥 같이 지내자고 이순신 장군에게 사정을 하고 이순신 장군은 같이 지내는 조건으로 명군을 잡아다 처벌할 수 있는 군벌권을 요구한다. 진린은 고민 끝에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순신 장군은 곧 명군 병사들을 처벌하여 행패를 잠재운다. 얼마나 지혜로운 외교 수완인가.

임진왜란의 맞수 이순신과 원균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이순신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원균을 지나치게 모함, 술수꾼으로 비하해서 기술한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이 일그러진 시각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 근거는 임란 직후 한때 원균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재조사 평가 후 선조대왕이 이순신, 권율, 원균 세 사람을 똑같이 선무일등공신에 책록한 점을 들고 있다.

난중일기의 몇 갈피에 이순신은 원균의 행동과 처사가 괴이하고 못마땅하다고 불편한 심회를 드러내고 있지만, 요즘 말로 문무겸전 불세출의 지장 이순신의 눈높이에 전형적인 돌격형 무장은 도무지 눈에 차지 않았을 법하다. 실제로 원균은 호방한 기마형 용장이기는 하였으나 행정력의 부족으로 해임된 전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장수는 맞추답게 모두 아들과 함께 부자가 순절했으니 역사의 기록은 극적인 구성을 좋아하는 것인가. 살펴본 대로 구국의 성웅이요 민족의 태양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오늘에 살아 계셨다면 우리에게 무어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공의 피눈물 나는 고뇌와 성취에서 무엇을 느끼고 본받을 것인가.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 볼 일이다.

명량해전의 일본 선단 330척 중 133척 전투선 이외의 나머지는 수송, 지원 선단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신 주미한 국대사관 관계자 및 도움말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